

어촌어항소식

2005. 11. 제215호(월간)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번지 인의빌딩 13층 T. (02)3673-2851~4/3673-2856/568-6651 F. (02)3673-2857 www.kfpa.or.kr 발행겸/편집인 裴平岩 · 인쇄인 金在克 ISSN 1227-7053 등록일 1988년3월19일

한국어항협회, 전환총회 성료

한국어촌어항협회 출범

어촌 어항 어장의 연계개발로 수산기반 구축



스 산 기반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공식 출범한다.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11월 8일 오전 11시 해군호텔 영빈관 1층(수정실)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 전환총회를 개최하고 전환보고 및 신설 정관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5월 31일 기존 어항법을 대체하는 어촌·어항법이 법률 제757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57조와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법이 발효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새로 제정된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관은 협회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사업수행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여 어촌·어항법에 근거한 협회의 정부위탁사업과 회원의 권리, 이사회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의 주요 골자를 보면 △협회 사업은 기존 조사, 연구 및 홍보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과 함께 정화, 정비, 어항에서 어촌 및 어장까지 확대하였고 어항시설물 안전 점검 등 어항관리 어촌종합개발사업 관련

설계, 감리 어촌어항의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발전기본계획 수립 어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 △회원 자격을 어촌·어항 관련 업체 및 해양수산 관계자로 확대하고 협회 목적 사업에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사회 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결 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임원 정수를 유관단체 수준인 15인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전환을 통한 협회의 기능 강화는 우리나라 어촌 어항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동시에 수산인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선진 수산 기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라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이에 앞서 배평암 한국어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주장해 온 ‘어촌 어항 어장의 통합 개발’을 통하여 바다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오는 12월 1일 협회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어항의 관광화 어촌의 공원화